

# 광주매일신문



kjdaily.com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(음력6월6일) 제8725호 대표전화 (062) 650 - 2000

## "유거 잡아라" 9월 무안공항-항저우 정기노선 뜬다

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취항한다.

전남도는 기존 중국 장가계 연길, 몽 골 울란바토르 정기 노선, 전세기 8개 국제노선과 함께 운항 노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,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속 도를 낼계획이다.

특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이 2025년 완공되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서입지를확고하다질것으로기대된다.

전남도는 10일 "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를 위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무안-항저우 정기노선 취항 협약을 체 결했다"고 밝혔다.

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중국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 호 텔에서 현지 여행·항공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남도 관광설명회에 참석했다.

관광설명회에는 천광성 중국 저장성 문화방송여유청장과 노타에어서비스, 룽에어 등 항저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 굴지의 여행·항공업계 관계자가

참석해 향후 중국과 전남 간 관광 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했다.

특히 김 지사는 이날 전남의 매력적 인 관광자원 홍보에 이어, 손정권 에이 앤드티 대표, 저우전성 노타에어서비스 대표와 함께 무안-항저우 정기편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. 협약에 따라 오는 9월

김영록 지사, 노타에어서비스와 주2회 운항 업무 협약 중국 현지 관광설명회 '전남·호남 여행상품' 집중 홍보

중순부터 무안-항저우 정기노선을 주 2

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베트남, 대만, 몽 회 운항할 예정이다. 협약식에선 무안 골 등 다양한 국가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인바운드 여행 1위 기업인 에 이앤드티에서전남전용 3박4일, 호남권4 박5일 여행상품 및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 계상품을 홍보해관심을 모았다.

전남도관광플랫폼(JN TOUR) 어플 을 활용한 자유여행 소개도 겸해 패키 지 관광 뿐만 아니라, 개별 관광을 원하

는 중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는 평가를 받았다.

7월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 중 이거나 운항 예정인 국제선은 베트남 나트랑·달랏·푸꾸옥·다낭,중국장가계 ·연길·여강·오르도스, 몽골 울란반토르 등이다. 국내선은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.

이와 함께 라오스(비엔티안·루앙프 라방), 필리핀(마닐라), 중국(상하이) 4 개 국가 4개 정기노선 운항을 협의 중이

김영록 지사는 "무안-항저우 정기노 선 취항으로 26년간 자매도시로서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전남도와 저장성의 우정 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"며 "항공편을 통해 많은 분이 전남을 방문 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·관광 콘텐츠와 가장 한국스러운 전남의 맛과 멋을 함 께 즐기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, 6월 말 기준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만6천명을 기록했다.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만3천명 대비 2배 증가 한 수치로 올해 이용객 목표인 50만명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. /김재정기자



중국항저우서 전남관광설명회

지난 9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무안-항저우 정기편 업무협약 등 '전남관광설명회'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지 여행항 공업계, 언론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. 〈전남도 제공〉

## 민주 당권, 이재명 vs 김두관 '맞대결'

이재명 "다시 뛰는 대한민국 만들 것" 출사표 김두관 "대표·대선후보 모두 李? 어리석은 것"

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간 맞 대결로치러지게 됐다. ▶관련기사 4면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무난한

승리를 예상하는 '어대명' (어차피 대표 는 이재명) 분위기 속에서도,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에 대한 당내 '침 묵하는 표심'이 어떻게 분출될지 주목 하는 분위기다.

이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민주당사 에서 회견을 열어 "다시 뛰는 대한민국 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, 수권정당인

민주당의 책임"이라며 "절망의 오늘' 을 '희망의 내일'로 바꿀 수 있다면 제 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"고 8·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.

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"단 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 은 없다"며 "이를 위해 인공지능(AI)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앞서 지난 9일 세종시의회에서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"이번

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 괴를 온 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" 라며 "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 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"고 주장했다.

특히 김 전 의원은 "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 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'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'로 민주주 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"고 이 전 대표 에 직격탄을 날렸다.

김 전 의원은 10일에도 CBS 라디오 에서 "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으로 압승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"고잘라말했다. ▶2면에계속

### KIA 김도영 '6월 MVP'…전반기 2번째

KBO 역대 3번째…타이거즈 선수 최초 '금자탑'

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(20) 이 KBO 리그 6월 월간 MVP로 선정됐 다. 김도영은 올 시즌 전반기에만 2차 례 월간 MVP에 이름을 올리는 금자탑 을 쌓았다.

김도영의 전반기 MVP 2회 수상은 K BO 리그 역대 3번째다. KIA 전신인 해 태를 포함해 타이거즈 선수 중 최초다.

10일 KBO에 따르면 김도영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 P로 선정됐다. 김도영은 지난 4월 월간 MVP로 선정된 이후 전반기에만 두 번 째 수상했다.

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6표(2 0.7%)를 얻는데 그쳤으나, 팬 투표에서 50만7천615표 중 48.4%를 받아 총점 34.5



4점을 획득했다. 2위 키움 김혜성 (총점 27.13점)을 여유있게 제치고 최종 1위 에 올랐다.

특히 김도영은 1983년(4·5월) 삼미 슈퍼스타즈의 장명부와 1998년(4·6월)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(현 두산 베어스 감독) 이후 26년 만에 KBO 전반기 MVP 2회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
김도영은 6월 24경기에서 32안타, 8홈 런 (2위), 27득점 (1위), 장타율 0.681 (3위), 출루율 0.468(4위), 안타(공동 9위·32개) 를 기록해 KIA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다.

6월 MVP로 선정된 김도영에게는 상 금 2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지며 신한은행 후원으로 모교인 광주동성중 학교에 선수 명의로 기부금 200만원이 전달된다. /주홍철 기자

#### **Today**

인터뷰-김이강광주서구청장 5면 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남구의회 6면 최형우최고령 타점왕도보인다 16면

## 龙江의 引起 龙江地 马拉克沙州

/김진수기자

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+





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



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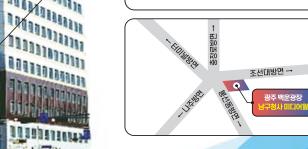
월 3,000회 이상 노출





A DININGTON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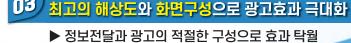
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(봉선동, 남구청)







▶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







남양정보기술(주)

☎ 광고문의 062) **231-1355**